한약재 수출 절반 밀수 10배

96 한약재 총수출액 3백54만4천달러

전체의약품 수출중 한약재 가장 부진

한약재 밀수 적발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수출은 급감소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약재수출은 전년에 비해 절반이상 감소한 반면 밀수는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의약품등 수출은 3억4천3백88만5천달러로 이는 전년 같은기간 3억1천7백54만8천달러보다 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약재 수출은 3백54만5천달러로 전년 같은기간의 7백77만7천달러보다 무려 54.4%나 감소했다.

또 지난해 9월까지의 한약재 밀수적발액은 2백66억4천2백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수입실적은 7천6백72만6천달러로 전년도 1억2천5백43만9천달러 보다 38.8%의감소를보였다.

전체의약품 수출액중 완제의약품이 6천9백83만2천달러로 전년 4천3백35만3천달러 보다 무려 61.6%로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낸 반면 한약재 수출이 가장 부진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규격화 성공 정착 불확실

서울지역 한약도매업소 설문결과

서울소재 한약도매업소들은 한약재 규격화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여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가 한약재 규격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한약 규격화제도 정착상황등 자가점검표」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에 응답한 서울 소재 도매업소들(23곳)의 60%(14곳)이상이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단지 17%(4곳)만이 성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약재규격화가 「반드시 필요하다」와 「조금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업소는 전체의 52%에 불과해 「필요없다」와 「잘 모르겠다」는 업소와 거의 비슷, 규격유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시책에 적극 홍보하겠다는 입장이 나타나 정부의 규격화정책 여부에 따라 그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규격화 성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취급자의 참여의지 △합리적인 가격관리 △원활한 공급 △대국민 홍보 △지속적인 계도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격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절반이상이 아직 이르다는 시각을 보여 규격품목을 내년부터 늘리겠다는 정부의 입장과 상반된 견해를 보였다.

시호 파종적기 구명

전남 농촌진흥원

해열 진통등에 효과가 있는 한약재 시호의 파종적기가 구명됐다.

전남농진원이 실시한 시호파종적기 구명시험 결과에 따르면 3월 10일 파종한 시호의 3백평당 건근수량은 92kg으로 3월1일 파종한 시호에 비해 6%, 3월 20일 파종한 시호에 비해서는 10%가 각각 증수됐다.

상근동 비율도 3월1일과 3월20일 파종한 것보다 각각 2%가 높은 66%로 나타났다.

한편 총 사이코사포닌 함량은 3월10일 파종시 1.84%로 나타나 3월1일 파종때 보다 0.16%, 3월20일 파종 때보다 0.19%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3월10일 파종한 시호 원뿌리의 길이는 13.3cm로 구명된 반면 3월1일 파종한 시호는 12.6cm, 3월20일 파종한 시호는 11.9cm로 나타나 생육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구명됐다.

집단 한약 중독사고

남탕근이 원인

최근 안양시에서 발생한 집단한약중독사고의 원인은 환자들이 복용한 한약재에 섞인 극약성분의 미치광이풀(남탕근)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환자들이 복용후 중독증상을 일으킨 안양의 영화당한약방의 첩약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건위제로 쓰이는 한방약제 창출에 이 약재와 겉모양이 비슷한 미치광이풀이 10%가량 섞여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산재채취과정 또는 유통과정에서 창출과 겉모양이 쉽게 구별되지 않는 미치광이풀을 잘 모르고 또는 무게를 늘이기 위해 넣어 벌어진 사고로 복지부는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따라 서울시와 경기도에 유통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제품 전량을 수거해 폐기하고 한약방, 약업사, 수입업자에 대한 약사법 위반여부를 정확히 조사 처분토록 지시했다.

치코리 방제가 절반 밑돌아

치코리에 많이 발생하는 잡초는 독새풀·피·여뀌·가막사리 등이며 △펜디> 유제, △마세트> 유제 등의 약제를 사용하더라도 방제가가 50%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은 방제가를 보인 것은 △펜디> 유제였으며 방제가는 46.7%에 불과하며 △펜디·프로닐> 유제나 △마세트> 유제의 경우 방제가는 각 43%와 42%로 나타났다.

북한산 약재 수입

지난해 총 1천6백77톤

◇북한산 한약재 수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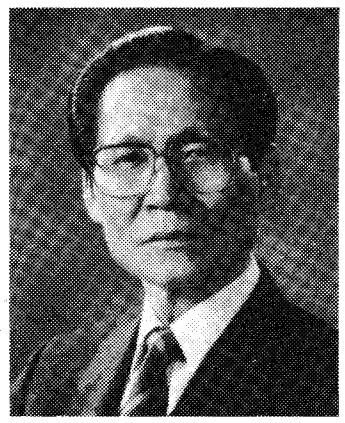
	'96. 10월			'96. 1~10월		
	수량	금액(천달러)	비율	수량	금액(천달러)	비율
한 약 재		1,676	11.6%		4,621	3.0%
ㅁ백 출	320t	1,020		320t	1,020	
ㅁ창 출	200t	248		200t	248	
ㅁ지 황	120t	120		120t	120	
ㅁ목단피	30t	117		30t	117	
ㅁ시 호	20t	96		20t	96	
ㅁ시 호	30t	75		30t	75	
ㅁ녹 용				4t	1,440	
ㅁ복 령				565t	966	
ㅁ건 강				100t	200	
ㅁ인의인				100t	200	
ㅁ반 하				40t	97	
ㅁ결명자				73t	26	
ㅁ복분자				2t	8	
금 은 화				1.7t	5	
소 회 향				2t	2	

〈표 참조〉

북한산 한약재 총 수입량중 복령이 5백65톤(96만6천달러)으로 가장 많고 백출 3백20톤(1백2만4달러), 창출 2백톤(24만8천달러), 지황 1백20톤(12만달러)순이며 이들 4개 품목이 전체 수입량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복령, 백출, 창출, 오미자등 지난 1월부터 10월말 현재까지 들여온 북한산 한약재는 총 15개 품목 1천6백77톤(4백62만1천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통일원은 최근 밝혔다.

농림장관 신년사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전국에 계신 500만 농업인 여러분!

농림공직자와 단체임직원 여러분!

희망찬 정축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고, 하시는 일마다 많은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은 개방화시대에 우리농업의 진로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으며 막대한 농촌 투융자 재원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일은 우리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대적인 의무라 하겠습니다.

개방화되고 선진화된 경제에서 우리 농업을 지키는 지름길은 하루빨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농업을 선진화 하는 것입니다.

금년은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농업의 모든 분야에서 비용절감과 능률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농업은 국민의 식량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생명산업이며 여러분은 생명창고를 맡고 있는 주역입니다. 또한 농촌은 온 국민의 고향이며 우리의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삶의 터전입니다.

경쟁력 있는 농업, 긍지와 보람을 느끼는 농업인, 편리하고 쾌적한 농촌의 건설은 우리 모두의 소망인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이룩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농업인 여러분과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21세기 선진농업과 농촌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축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보람이 가득하기를 다시한번 기원합니다.

1997. 1. 1.

농림부장관 丁時采

파주 일산 일대 총 6만1천여평 규모

국내 최대 약초원 생긴다

서울대 약대 부설 약초원

국내 최대 규모의 약초원이 파주 및 일산 일대에 조성될 전망이다.

서울대약대 부설 약초원(원장 김영종)은 오는 2천년까지 국내 규모의 약초원을 건립, 국내 약용식물보존 및 육성의 중심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약초원은 최근 일산에 6천여평, 파주일대에 5만5천여평 등 총 6만1천여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서울대 약대의 6만1천여평 규모의 약초원은 국공립기관 및 대학 등 국·사립기관을 통틀어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

서울대약대측은 일산 및 파주에 조성될 약초원을 각각 특성화된 운영을 통해 생물다양성보존과 국내외 생약자원 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할 방침이다.

내방

△정형모 부회장 △김동균 이사 △김용한 이사 △김성배 경기도 지부장 △박영임 강원도 지부장 △잠지홍 이사 △정준수 서울 동대문구 사무소장 △이계순 일산시 공판장장